

이야기로 보는 보조금·복지 부정 신고

이 책에 담긴 내용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목차

책을 펴내며

- 06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씨앗입니다

화물 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 08 선배의 도(道)

영농조합법인의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 12 타향에서 온 조합원

국가연구개발 사업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 16 숨은 정답 찾기

대학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 20 한국의이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 수급

- 24 뜨거운, 너무 뜨거운 순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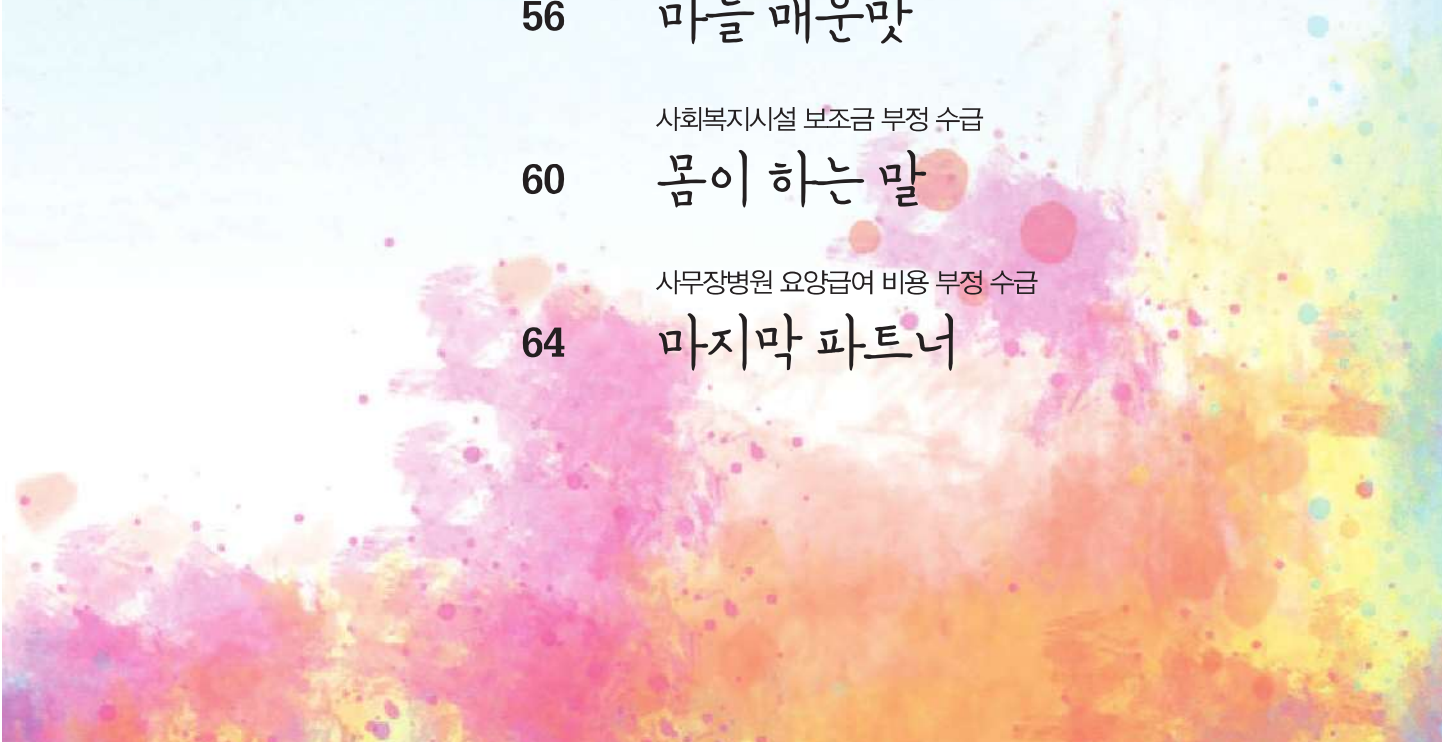
영화 제작 지원 자치단체 보조금 부정 수급

- 28 뿌리 이야기

체육 단체의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 32 종소리



- 
- 
- 버스 보조금 부정 수급
36 **있어야 할 것**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부정 수급
40 **빙빙빙**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부정 수급
44 **정년의 도리**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금 부정 수급
48 **추임새**
-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 부정 수급
52 **액셀**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56 **마늘 매운맛**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 수급
60 **몸이 하는 말**
-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비용 부정 수급
64 **마지막 파트너**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씨앗입니다

부정 수급은 범죄행위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는 '부정 수급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국민의 85.7%, 사회복지 담당자의 74.3%가 우리나라의 각종 복지서비스 부정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서 부정 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다면 '신고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71.4%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부정 수급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 수급이 범죄인가?'라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정부의 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문화와 부정 수급을 범죄라기보다 도덕적 해이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세법을 어겨 부당 이득을 챙기는 탈세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라고 인식하면서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 예산을 편취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진국에서는 부정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왔습니다. 영국의 경우 일찍부터 민관 합동으로 부정 예방 및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부정에 따른 각종 피해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부정방지법(Fraud Act, 2006)」을 도입해 관련 기구를 설립하는 등 부정 수급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근저에는 무엇보다 부정 수급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공공재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단 한 푼이라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권익위는 2013년 10월 복지 예산의 부정 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개소한 바 있고, 2015년 1월에는 보조금 분야까지 확대·개편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국번 없이 110)'로 복지 및 보조금 예산의 부정 수급 방지와 근절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또한 최근 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일명 부정환수법)」을 국회에 제출해 공공재정 분야에서 고도화·은밀화되고 있는 부정 청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 사례집은 지금까지 권익위에 접수되어 처리된 부정 수급 신고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엮은 것입니다. 사례집을 통해 어떤 형태의 부정 수급이 일어나는지 알리고 국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부정 수급은 정부와 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우선될 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집이 국민들께서 부정 수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고뿐만 아니라 제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부정 수급 방지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민 중심의 '원스톱 권익구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례집이 우리나라를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5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

선배의 도(道)

화물 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주유구 뚜껑을 열어서 고무마개가 막혀 있으면 휘발유를 주유합니다. 무조건 휘발유! 구멍이 좀 크고 고무마개가 없으면 경유를 주유합니다. 무조건 경유! 영감님,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영감님이라니. 스무 살 초반쯤 됐을까, ‘알바 선배’도 선배라 깍듯이 선배님이라고 불렀더니 초면에 딱 잘라 영감님이라니. 김 씨는 화딱지가 나려는 걸 꼭 참았다. 김 씨는 소싯적 전국을 누비며 포클레인 기사로 일했고 신이 넘어서는 건물 관리직으로 취직해 어엿한 사무직으로 일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쯤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전 정년퇴직하고 어렵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는데 첫날부터 까다롭게 굴면 안 된다.

“자,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1단계, 차가 들어오면 주유구 앞에서 기다립니다. 2단계는…”

“이래 봐도 기억력 하나는 썩썩해.”

김 씨는 유니폼을 단정하게 매만지고 주유기 앞에 섰다.

“아직 끝이 아니라니까요.”

알바 선배가 차량 번호가 찍힌 종이를 건넸다.

“여기 적힌 화물차 번호들을 잘 봐주세요. 이 차들이 들어오면 직접 주유하지 말고 저를 부르거나 사장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아셨죠? 꼭 명심하셔야 해요.”

김 씨는 뭔가 수상쩍다는 걸 감지했다. 이 나이가 되면 꼬리털만 봐도 개털인지 아닌지 훤히 안다.

‘히, 사장님이 직접 하신다고? 어디 뉴스에서 본 거 같은 데... 이거 차주랑 짜고 보조금 더 받으려는 거 아냐?’

얼마 전 유가보조금이 줄줄 샌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화물차주와 주유소가 짜고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결제해준다는 것이었다. 슬쩍 찢어본 것뿐인데 알바 선배의 얼굴이 하얘졌다.

“영..., 영감님은 뭘지 모르셔도 돼요.”

김 씨는 젊은 애가 벌써 세상 쉽게 사는 법만 배우는 것 같아 아주 못마땅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게 된 거야? 나중에 다 드러나면 어떻게 하려고..., 사장이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겠지.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이런 일에 앞장서면 되겠어?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야. 양심을 버리면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고. 내가 신고하기 전에 먼저 신고하는 게 어때?”

알바 선배는 시무룩해졌다. 젊은 애라 그런지 순진하다. 나쁜 일이라는 인식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냥 사장이 시키니까, 괜찮다고 부추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따랐을 것이다. 김 씨는 주눅이 든 그가 조금 측은하게 느껴졌다.

“본인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은데... 선배님 미래를 봐서 신고는 선배님한테 맡기지. 자, 여기 전화번호. 바로 신고해도 좋고,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전화해.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해준다니까 걱정 말고.”

김 씨는 차량 번호가 찍힌 종이 뒷면에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상담번호 '110'과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다.

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이 이번엔 시뻘겑게 달아올랐다.

“고..., 감사합니다.”

“내가 한참 인생 선배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알바 선배님?”

김 씨는 미련 없이 유니폼을 벗어던졌다.



**알아
두세요!**

유가보조금 제도는 화물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영업용 화물 자동차의 경우 직영 차량은 운수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위·수탁 지입 차량은 지입차주에게 지급된다. 보통 유류 구매 카드(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유류 대금을 선결제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 유류 대금으로 청구된다. 이런 절차를 악용해 화물차주와 주유소 운영자들이 공모하고 주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주유한 것처럼 허위결제하거나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적발되어 구속 기소됐다.

타향에서 온 조합원

영농조합법인의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수진 씨 그만혀. 조합장이 저번 정기총회에서 분명히 새것으로 들여놓았다고 했잖여. 사업계획서도 봤으면서 그렇게 못 미더워?”

몇 년 전 같은 마을에 귀농한 수진 씨가 동갑인 걸 안 뒤 먼저 말을 트자고 했고, 그때부터 영순 씨도 그와 편하게 말을 했지만 그래도 이름을 부를 땐 꼬박꼬박 ‘씨’ 자를 빠뜨리지 않았다. 수진 씨가 조합장을 의심할 때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 의심이 많은가 보다’ 싶어 은근히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지난해 친환경 톱밥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자고 처음 이장택 둘째가 찾아왔을 때만 해도 영순 씨 역시 다른 마을 사람들 처럼 반신반의했다. 마을 사람 중 누군가는 시설 투자비가 꽤 들어간다고 했다. 여름에도 안정적으로 재배하려면 냉동 시설을 들여놔야 하는데 몇 억은 우습게 든다는 것이다. 이장택 둘째는 정부보조금을 끌어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젊은 사람이 패기 있게 밀어붙이니 마음이 움직였다. 마을에서 스무 집 가량 뜻을 모아 출자했고 그중에서 이장택이 가장 많은 돈을 냈다. 조합장으로 선출된 뒤 이장택 둘째는 혼자 동분서주했다. 그러더니 정말 정부보조금을 4억 원이나 끌어왔다. 사단이 난 것은 작업장에 냉동기를 들여놓고 난 뒤였다.

“여기 똑바로 봐. 틀림없이 올해 제조되었다고 찍혀 있는 거, 니 눈에도 똑똑히 보이자?”

수진 씨가 냉동기에 붙어 있는 제품 사양표를 가리켰다. 귀농 3년 만에 수진 씨는 제법 사투리를 썼다.

“그런데 와?”

영순 씨의 말에 수진 씨는 스티커를 조심스레 떼었다. 스티커 뒤에 나사 구멍으로 보이는 네 개의 구멍이 선명했다.

“아무래도 진짜 제품 사양표를 뜯어내고 스티커를 새로 붙인 거 같어. 이것도 좀 봐야.”

수진 씨는 냉동기의 앞면 철판을 거침없이 열었다. 그러자 안쪽에 전혀 다른 제조일자가 표시돼 있는 게 아닌가.

“6년 전 생산한 거라고 표시돼 있는 거 확실히 보이잖아?”

조합장이 중고 제품을 신제품이라고 속인 것이 분명했다.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 조합원을 속였을까? 조합원이 출자한 돈도 잘못 쓰인 건 아닐까?’ 영순 씨는 차마 믿고 싶지 않았다.

“우리에게 보여준 사업계획서는 눈속임이었던 것 같어. 그뿐인 줄 알어? 작업장 건축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도 전부 조합장이 공급했잖어. 그것도 꺼림칙혀.”

수진 씨는 이번에는 야무지게 서울말을 써가면서 의심 가는 점을 모두 털어놓았다. 조합원을 속일 정도라면 사업정산서도 꾸밈을 거라며 분노했다. 영순 씨도 조합장이 껄썩하긴 했지만 선뜻 신고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조합장이 끌어온 보조금 4억 원이 제대로 쓰이긴 한 거여? 아휴! 조합장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데... 같은 마을 사람을 신고했다가 왕따 되면 어쩐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지어야 하니까. 이런 일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지 않게 철저히 보호해준대. 조합이 잠시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 마을을 다시 일으킬 수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잖아?”
이럴 때 보면, 마을을 제일 사랑하는 건 오히려 타향 사람인 수진 씨인 것 같다.

“나보다 더 우리 마을 사람 같어. 너 말여.”

“나 말여? 난 그저 우리 조합을 사랑하는 순수한 조합원일 뿐이여.”

미영 씨는 다정한 말투로 수진 씨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알아
두세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대표 A씨는 국가보조금으로 영농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정을 저질렀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냉동기 등 설비를 중고 제품으로 저렴하게 구입해 설치하고도 신제품으로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사업정산서를 제출하고, 시설 설치 공사를 하면서 보조금 집행 잔액도 반납하지 않고 서류를 조작, 미정산하여 총 1억 9,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속 기소되었다.

숨은 정답 찾기

국가연구개발 사업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예? 3억 원어치나 구매하시겠다고요?”

C기업 구매부장의 말에 김 이사는 매우 반가웠다. 이 정도면 이번 달 매출은 안심해도 됐다.

“아니, 그게 아니라...”

구매부장이 난색을 표했다.

김 이사는 3년 전 대학에서 전자 부품 개발 연구를 하던 중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아직 작은 벤처 기업이지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한국 경제 100년을 책임지겠다는 대표이사의 설득에 의기투합했다. 당장 수익이 없었기에 김 이사는 연구하는 틈틈이 영업 전선에 나섰다.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얼마 전엔 차세대 LED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전자 부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 제품 생산까지 갈 길이 멀었다. C기업의 개발 사업이 줄줄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돼 수십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김 이사는 부러움에 한숨이 나왔다. 게다가 자체적으로 차세대 LED 개발 사업까지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어 대표가 일찌감치 영업에 들어갔던 터였다. 그러던 차에 C기업 구매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니, 김 이사는 다른 일을 모두 미루고 한걸음에 달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필요한 장비 리스트인데요, 왜 대표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구매부장이 내놓은 리스트에는 열 충격기, CNT 투명 전극 하드 코팅 필름, CNT 전극 보호 충전품 등이 적혀 있었다. 짐작과는 다르게 국책

연구 과제로 선정된 ‘대전 방지 코팅 사업’에 필요한 기기들이었다.

김 이사가 어리둥절해하자 구매부장은 난감해했다.

“이것 참,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도 뭣하고…. 대표님께
아무 말씀 못 들으셨어요?”

구매부장의 말은,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 없는 차세대 LED 개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국가연구개발과 관련된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산하자고 이미 대표와 합의했다는 거였다.

회사로 돌아온 김 이사는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대표는 망설이는 김 이사를 제쳐두고 일사천리로 서류를 꾸며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김 이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국책 연구비가 이런 식으로 새나가는 한, 작은 벤처 기업에까지 연구비 지원 혜택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신고를 결심하고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막상 전화를 걸자니 망설여졌다. 혹시 신고자가 드러나 C기업과 관계가 틀어지면 회사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하지만 이대로 묵과할 수도 없었다. 김 이사는 110번을 눌렀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상담 전화번호였다.

“선생님, 신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대화 내용을 녹음해놓았습니다. 그간 회사에서 발행한 허위 거래 명세표도 확보해놓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 이사의 머릿속엔 갑과 을의 복잡한 관계들이 얽혀들었다. 간단명료하지도, 결론을 내리기도 어려운 문제였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은 하나였다. 김 이사는 차분하게 맞서보기로 결심했다.



**알아
두세요!**

A업체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 개발 과제와 무관한 회사 자체 사업용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연구 기술 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정산하는 수법으로 정부 출연금 약 12억 6,400만 원을 횡령했다. A기업처럼 연구 개발비(R&D)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는 연구원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허위 증빙서류 제출, 위장 가맹점에서 부정 사용, 유명회사 설립·거래를 통한 연구비 유용, 회사 경영 자금으로 연구비를 전용하거나 납품 회사와 공모해 연구비를 횡령하는 형태로 발생한다.

한국의이다

대학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교정에 플래카드가 어지럽다. 교양 강좌에서 취업 설명회 안내까지 저마다 아우성을 치는 것 같다. 그중에 에이미의 발걸음을 붙잡은 플래카드가 있었다.

“축! 20**년도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사업 선정”

돌개바람이 불어와 교정의 나뭇가지들을 사납게 흔들었다. 플래카드들이 한꺼번에 소리치는 것 같아 에이미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몇 달 전 그날처럼 도망치고만 싶었다.

작년 이맘때 그녀는 아르바이트 학생 도우미로 뽑혔다. 어린 시절 이민을 가서 영어회화에 능통하다는 점이 유리하게 적용됐다. 정착을 꿈꾸며 한국 땅을 밟은 그녀는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도전한 것이다. 학교 행정실을 찾아온 손님에게 커피나 녹차를 드리고, 복사를 하거나 팩스를 보내고, 책상 정리를 돕는 일이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더니, 에이미는 전혀 아닌 거 같아. 요즘 한국 애들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손님 오면 잘 챙겨주고 배려도 많이 하고, 덕분에 너무 편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칭찬도 들었다. 에이미는 최고 학점을 받은 것만큼이나 기뻐다. 이민 2세로 살면서 늘 한국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궁금했다.

어느 날 에이미는 행정실 김 선생님께서 문서를 폐기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손에 든 문서는 다음 해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사업 선정에 관한 것으로 이전에 서류 작성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다. 무심코 문

서를 읽어 내려간 에이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20**년도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선정 기준에 맞추기 위해 바로 전 해의 ‘재학생 충원을 및 취업률’이 변경돼 있었던 것이다. 문서에는 버젓이 변경 비율까지 적혀 있었다. 그뿐 아니었다. 다른 사업에서 지원받은 국가보조금 일부를 재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4대 보험료와 의료보험료로 대납하고 있는 내용도 있었다.

“선생님, 폐기하라고 주신 서류요, 교수님들 연구 개발하고 사용하라는 국가보조금이 이상한 곳에 쓰인 거 같던데... 이런 곳에 써도 되나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자 김 선생님은 불같이 화를 냈다. 다른 선생님들도 에이미를 몰아붙였다.

“이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일이야. 학생 도우미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전 학생 도우미 이전에 학교 재학생이고, 한국 사람이에요. 국가보조금은 원래 신청한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에이미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부로 해고되었다.

플래카드로부터 허둥지둥 도망친 이후에도 에이미는 머리가 복잡했다. 한국 문화를 모르는 자신 탓이었을까, 이런 일을 대충 넘어가는 게 한국 문화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았다.

에이미는 고민 끝에 인터넷을 검색했다. 검색어 몇 개로 부정 수급 신고 전용 홈페이지를 쉽게 발견했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한 에이미는 알고 있는 내용을 적어 내려갔다. 혹시나 해서 그 문서를 복사해두었다는 내용까지 꼼꼼하게 썼다. 얼마 후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조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에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었다니, 에이미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알아
두세요!**



A대학은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원 기준 지표인 '재학생 총원률과 취업률'을 조작한 허위지표를 제출했다. '재학생 총원률과 취업률'은 타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10억 5,400만 원의 일부를 재학생들의 4대 보험 및 의료 보험 대납비 등으로 사용해 허위로 부풀린 것이다. 이는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에 해당된다.

뜨거운, 너무 뜨거운 순두부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 수급



“선생님, 저는 에너지관리공단 지열 난방시설 설치 확인 담당자란 말입니다. AS 건은 시공업체와 말씀하셔야 해요.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박 대리가 거칠게 전화를 끊었다. 벌써 일주일째 같은 민원인에게 시달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옆자리 정 대리는 박 대리 쪽을 슬쩍 건너봤다. 박 대리는 잔뜩 인상을 구기더니 이내 전화기를 들고 버튼을 눌렀다.

“사장님,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어떡합니까? 민원인 말이, 사장님이 직접 시공하지도 않은 계약서를 제출하셨다는데... 예?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박 대리는 목소리를 낮춰 한참 동안 통화했다.

점심시간에 정 대리는 박 대리를 따로 불러냈다. 정 대리는 평소 공단 직원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상담사를 자처하며 도움을 주어 ‘공단의 해결사’로 불린다. 이번에도 해결사 본능을 발휘한 정 대리는 순두부찌개를 앞에 놓고 슬며시 박 대리에게 말을 붙였다.

“대체 무슨 일이야? 민원인이 곤란하게 굴면 혼자 해결하려 들지 말고 부서장과 의논해보는 게 어때? 아니면 나한테 털어놔 봐. 이 공단의 해결사가 도움이 될지 알아?”

“별일 아니야.”

박 대리는 뜨거운 순두부찌개를 식히지도 않고 후룩후룩 떠먹었다.

“그러다 입천장 데겠다. 혹시 요즘 진행하고 있는 ‘그린 흡사업’에 관련된 일이야?”

‘그린 홈사업’이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 사람이 속한 부서는 소비자와 시공업체 간의 계약 여부와 지열 난방시설 설치를 확인하는 곳이다. 규정대로 일을 처리하면 여간해선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 별일 아니라니까.”

박 대리는 서둘러 순두부찌개를 비우고 먼저 식당을 나갔다.

다음 날 박 대리가 외출한 사이, 옆 자리의 전화벨이 울리자 정 대리는 일부러 전화를 당겨 받았다. 그 민원인이었다.

“실제 저희 집 공사를 한 업체는 무자격 업자였어요. 전 몰랐죠. 시공 기업이 보낸 공사 업자를 믿고 공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하도 고장이 잦아서 AS를 요청해도 공사 업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군요. 무자격 업체가 핵심 자재를 제대로 쓰지도 않고 부실 공사를 한 거예요.”

민원인은 공사의 설치 확인 담당자가 잘 알아보지 않고 설치 확인을 해 준 거라며 공단에도 책임이 있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민원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관련 서류 심사와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다.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뒤에 정 대리는 고민에 빠졌다. 박 대리에게 바로잡으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미 박 대리 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잘못하면 공단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이대로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정 대리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민원인의 말대로 문제의 시공 기업은 계약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허위로 공사계약서를 제출해 정부보조금을 가로채고 있었다. 박 대리의 묵인과 협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전국적으로 사업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었다. 며칠 후 정 대리는 우체국에 가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우편물을 부쳤다. 그간 비밀리에 조사해 알게 된 비리 의심 자료였다. 우체국을 나서며 정 대리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뜨거운 순두부를 이제 막 삼킨 사람처럼 열이 확확 올랐다.



**알아
두세요!**

정부 사업인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의 시공 기업으로 선정된 A업체는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 B사가 시공하게 했다. A업체는 대상 주택 소유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체결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정부보조금 약 4억 9,000여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B업체는 부실 공사를 했으며, 사업을 추진한 공단의 담당 직원은 업무 소홀로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정부 예산을 낭비했다. 이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부정 수급 행위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뿌리 이야기

영화 제작 지원 자치단체 보조금 부정 수급



조 여사는 몇 개월째 답답하기만 했다. 평생 영화계에서 일해왔지만 영화 제작이 이렇게 오래 미뤄지는 일은 없었다. 차라리 없던 일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니 답답했다.

영화계 지인들과 의기투합한 게 재작년이었다. 젊은 단편영화 감독들에게 장편영화를 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원로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기로 한 것이다.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자금 중 2억 원은 몇몇 원로들이 함께 분담하기로 하고, 4억 원은 정부에서 지원받기로 했다. 모두가 노력한 덕분인지, 사업계획서가 승인되어 보조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그 후 소식이 감감했다. 이미 한 무명작가의 시나리오를 영화화하기로 결정했지만, 누구에게 메가폰을 맡길 것인지, 스태프와 배우들은 어찌할 것인지 의논해오는 사람이 없었다.

조 여사는 영화 학교 교장에게 연락했다. 함께 의기투합했던 원로 중 한 명이었다.

“선생님, 영화를 시작하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텐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좀 더 기다리시죠. 영화란 게 원래 스크린에 걸리기까지는 끝없이 기다려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잖습니까.”

혼자만 마음이 급했나 싶어서 조 여사는 그 뒤로도 몇 개월을 더 기다렸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기에 다시 영화 학교 교장을 찾아갔다. 교장의 입에선 “시나리오를 다시 검토하자”는 뜻밖의 말이 나왔다.

“기획안에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제 와서 시나리오를 재검토하자는 말씀은 기획안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뜻인데.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납하자는
말씀인가요?”

자금 문제는 예민하기 때문에 조 여사는 일부러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
른 원로들에게 맡겨두고 관여하지 않았다. 어차피 영화 제작에 쓰일 돈
이기 때문에 누군가 잘 관리하겠거니 여겼다.

“그게 조 여사님과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십니까?”

교장은 화를 버럭 냈다. 조 여사는 뜨거운 물을 뒤집어쓴 것 같았다.

“혹시 지원금을 다른 데로 돌려 쓴 건 아니신가요? 아무리 연
락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이 몇 있던데요.”

조 여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요새 영화 학교가 수익이 납니까? 사실 지원금이란 게,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같은 학교를 위해 쓰여도 좋은 것 아
납니까?”

그제야 조 여사는 대충 눈치 챌 수 있었다. 애초에 사업기획서 자체가
자금 유용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고 모든 게 허위였던 것이다.

“선생님,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원로들은 영화계
의 뿌리예요.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 여사는 몇 개월간 쌓였던 울분을 한꺼번에 터뜨렸다. 교장은 그런
조 여사를 끝내 외면했다.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하는 법. 조 여사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화기를

들었다.

“예,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입니다. 말씀하세요.”

“영화 제작을 위해 자치 단체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유용하고 있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보조금 지원 관련 사업에 참여해서 관련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해도 될까요?”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신고해주세요.”

조사관의 목소리를 듣자 조 여사는 왠지 마음이 놓였다. 어쩌면 뿌리부터 잘못된 일을 조금씩 바로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알아
두세요!**

시로부터 예술 학교를 위탁받아 운영한 재단법인 이사장 A씨는 영화 제작을 위해 보조금 4억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예술 학교 총장, 운영위원장, 영화감독 등과 결탁해 영화 장비를 무료로 지원받았음에도 허위로 계산서를 작성하고, 영화 관련 제작자들의 인건비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부패 행위에 해당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종소리

체육 단체의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과장님, 이 노트북 괜찮은데요.”

체육 단체에서 근무하는 유 대리는 ‘도민 마라톤 대회’ 기간 중 사용한 노트북이 썩 마음에 들었다. 같은 부서 김 과장이 도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한 달간 대여받은 것이었다. 최신 사양인데다 디자인까지 깔끔해 딸내미 생일 선물로 안성맞춤일 것 같았다.

“노트북 하나 살까 고민 중인데 어디에서 대여받은 거예요?”

유 대리는 대여한 물건을 구입하면 조금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김 과장에게 연락처를 물었다.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마라톤 행사 보고서나 빨리 작성해서 결재 올려. 페이스 페인팅 행사랑 다른 부대 행사도 빠뜨리지 말고. 참, 노트북은 내가 반납할 테니까 업무 끝나면 내 자리에 꼭 가져다 놓고, 알겠나?”

김 과장이 돌연 정색하는 통에 유 대리는 당황했다. 그저 연락처가 궁금해 물어본 것 뿐인데. 머쓱해진 유 대리는 뒤통수를 긁적였다. 김 과장이 자리를 뜬 후 유 대리는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손 주임에게 다가갔다.

“손 주임. 김 과장이 대여해온 노트북 어디서 얼마에 대여받았는지 알아? 노트북이 디자인이나 사양이 꽤 괜찮아서 나도 구입해볼까 하고, 손 주임은 세금계산서 처리하면서 봤을 거야냐.”

“잠시만요, 어디 보자… 150만 9,000원이네요.”

가격을 듣는 순간 유 대리는 입이 떡 벌어졌다.

“이 가격에 한 달 동안 빌려왔단 말이야?”

생각보다 높은 대여 비용에 유 대리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노트북을 하나 구매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보니, 김 과장이 굳이 직접 반납하겠다고 노트북을 챙기려는 것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 평소 같으면 이런 일은 유 대리의 몫이었다.

“혹시, 그거 마라톤 대회 끝나고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챙기는 거 아닐까?”

유 대리의 말에 손 주임이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마라톤 대회에서 썼던 무전기나 캠코더 같은 일부 물품도 임차한 것으로 처리했지만 반납하지 않고 사무실 창고에 가져다 뒀어요. 아무래도 과장님이 실제로는 구입을 해놓고 임차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만 바꿔치기하신 것 같아요.”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라는 듯 손 주임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퇴근길에 유 대리는 컴퓨터 대리점에 갔다가 빈손으로 나왔다.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문득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노트북 한 대를 꿀꺽 챙기는 사람도 있는데, 겨우 몇 푼 아끼자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다 결국엔 이렇게 빈손이라니... 유 대리는 애꿎은 길가의 돌맹이를 획 걷어쳤다. 그때 마침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아빠, 노트북 샀어?”

얼음송곳처럼 썩한 목소리였다. 정신이 번쩍 났다. 잠시나마 공금을 횡

령한 김 과장을 부러워하다니! 착하고 정직하게 자라야 한다고 가르쳤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유 대리는 딸과 통화를 마친 뒤 다시 휴대전화 버튼을 눌렀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였다. 김 과장의 머릿속에도 커다란 종소리를 울려줘야 한다고 유 대리는 생각했다.



**알아
두세요!**

마라톤 대회를 추진한 M단체의 직원 A씨는 세부 내역을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 장비를 사용하고도 전산 장비 업체로부터 임차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며, 구명복은 임시로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지원금으로 구입, 300만 원 상당의 구명복을 부당으로 취득했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에 해당하며 부정 수급한 금액은 전액 환수되었다.

있어야 할 것

버스 보조금 부정 수급



순애 할매는 아까부터 산모퉁이를 눈이 빠져라 바라보고 앉아 있다. 할매 옆에는 옥수수 한 보따리가 놓여 있다. 읍내 장에 내다 팔려고 미리 갈무리해둔 것이다. 촌에서 푼돈이라도 만질 수 있는 날은 장날뿐이다. 이렇게 마련한 용돈으로 여름방학 때 손자 놈이 놀러 오면 사이다도 쏘고 치킨도 쓸 요량이다. 요즘 동네 가게에서 닭을 튀겨 파는데 먹을 만하다. 촌구석이라도 있을 건 다 있다.

그런데 버스 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영 감감무소식이다. 순애 할매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스마트폰을 꺼냈다. 어디든 가지고 다녀야 연락이 닿는다고, 그래야 안심이 된다고 아들이 사다 준 전화기다. 할매는 시간부터 확인했다.

“벌써 한 시간이나 지났는디...”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자니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오라는 버스는 안 오고 경운기 한 대가 할매 곁으로 탈탈탈 다가왔다. 영배다. 경운기에 감자 포대를 한가득 싣고 장에 가는 길인가 보다.

“할매, 여서 뭐슬 기다려요?”

“버스가 안 온다야. 장에 가야 하는디...”

“하이고, 할매. 버스 안 와요. 여기 타세요. 적자 노선이라고 안 댕긴지 꽤 됐는디, 몰랐소?”

할매는 영배 옆자리에 타자마자 콧방귀를 끼었다.

“야가 내만치도 모르네. 적자 노선에 버스 보조금을 받아서 댕기기로 한 거, 몰랐냐? 나가 요 전화기로 뉴스란 뉴스는 죄 보는디? 손가락으로 짹 펴주기만 하면 글자가 얼마나 잘 보인다.”

“글쎄예, 버스 회사 사장이 보조금만 타먹고 버스는 안 내주니 안 댕기는 거지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예.”

할매는 속에서 불끈 불덩이가 솟는 것 같았다. 버스 회사 사장이 돈은 돈대로 챙기면서, 촌이라고 무시한 것 같아 여간 분한 게 아니었다.

“저 옆 동네는 하루에 한 번 온다는디, 그것도 지 맘대로라 아예 읍내 나갈 때는 택시 부른다 안 허요.”

“뭐여? 니는 알고도 가만히 있었냐? 버스 안 오는 것이 몰래 나랏돈을 빼먹는 거잖여. 니, 이런 거 신고하는 데가 어딘지 알어?”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라고 있긴 있는가 보데예, 보조금을 제 멋대로 썼다가 요기 조사관들한테 걸리면 혼쫌이 난다고 하던디. 와, 할매가 신고하실라고예?”

순애 할매는 영배가 알려준 번호로 당장 전화를 걸었다.

“거그 복지 보조금 거시기 센터 맞쥬?”

“예. 맞습니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입니다.”

“버스 보조금은 알뜰히 챙기면서 버스는 안 댕기게 하는 버스 회사 사장이 있는디, 여다 신고하면 되쥬?”

“버스 적자 노선에 지급되는 보조금 말씀이시지요? 실제로 버스는 안 다닌다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조사관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조사해보겠습니다.”

흡족한 얼굴로 순애 할매가 통화를 마치자 영배가 엄지를 치켜들었다.

“우리 할매, 정말 짱입니더!”

“촌에도 있을 건 다 있어야 하는겨. 버스도 있어야 하고, 이런 걸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겨.”

순애 할매는 의기양양하게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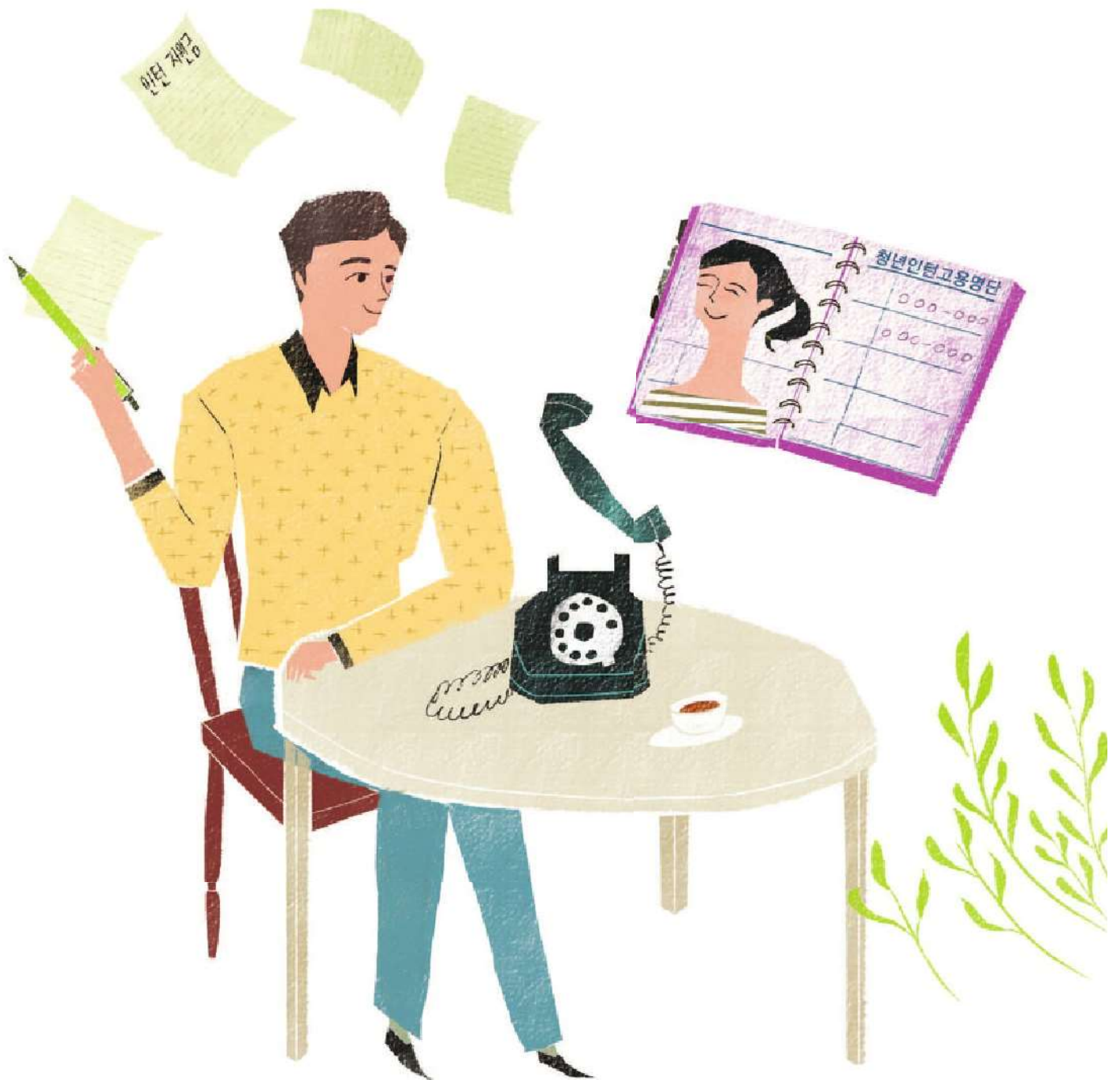


**알아
두세요!**

고속버스업체 A는 ○○도로부터 비수익 노선 운행 촉진을 위한 ‘시외버스 재정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년 수십 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수익 노선인 기존 노선과 유사한 노선을 신설하여 실제 운행하지 않으면서 이를 비수익 노선으로 신고해 재정 지원을 받거나, 신고된 비수익 노선을 인가받은 대로 운행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부정 수급 행위다.

빙빙빙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부정 수급



“준희야, 요즘 뭐 하는 일 있니? 취직은 됐고?”

문 대리는 수화기를 잡지 않은 한 손으로 볼펜을 빙빙 돌렸다. 말을 빙빙 돌려야 할 때면 문 대리의 손에는 어김없이 볼펜이 들려 있곤 했다.

“문 대리님, 좋은 일자리 나왔어요?”

준희가 반갑게 물었다. 싹싹하고 활기찬 목소리가 귓바퀴에 착 감긴다.

준희는 문 대리가 일하는 인력 파견 회사의 아르바이트생 명단에 A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아르바이트생은 성실함, 책임감, 파견 기업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등급이 매겨진다. 준희는 귀여운 인상에 장사 수완도 좋아 지난번 백화점 세일 행사장에 파견됐을 때는 이불을 ‘완판’시켰다. 고된 일에도 불평 하나 없이 일하는 게 예뻐 가끔 밥도 사줬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나면 준희부터 챙겼다.

“아니. 그냥 안부 확인하려고 전화했어.”

“아, 예...”

준희의 목소리가 금세 시무룩해졌다. 문 대리는 빙빙 돌리고 있던 볼펜으로 메모지에 ‘직업 무’라고 적었다.

“자격증은 땀어? 한글타자 1급 시험 본다고 했잖아.”

“예. 따긴 했는데 그게 취업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스펙 좋은 애들이 워낙 많아서요. 일자리 좀 알아봐주세요. 아르바이트 자리도 좋고 인턴도 좋아요.”

‘인턴’이란 말에 문 대리는 순간 돌리고 있던 볼펜을 하마터면 놓칠 뻔

했다. 볼펜을 고쳐 줬 그는 “자격증 한글타자 1급”이라고 메모했다.
전화를 끊고 모니터에 작업 중인 파일을 띄웠다. ‘청년 인턴 고용 명단’
에 준희의 인적 사항을 쳐 넣었다.

‘이 문서가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면 얼마나 좋을까. 인턴으로
고용됐다고 하면 준희는 얼마나 좋아했을까.’

문 대리는 내려놓았던 볼펜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

어제부터 문 대리는 아르바이트생 명단을 검색해 청년 인턴직 조건에
맞는 인원을 찾고 있었다. 사장의 지시였다. 사장은 지금 문 대리가 근
무하고 있는 인력 파견 업체 말고도 공장을 하나 더 운영하고 있었다.
그 공장에서 인턴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서 ‘중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금’을 받아내려는 것이다. “나 혼자 좋아고 이러는 거 아니다”라며
부추기는 사장을 문 대리는 무시할 수 없었다.

조건이 맞는 인원을 고르자니 나이나 학력도 적당해야 하고 혹시 다른
곳에 취직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했다. 그렇
게 전화를 돌리며 준희에게까지 연락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통화를 할
수록 취업을 간절히 바라는 아이들을 농락하는 기분이 들었다. 전화를
끊기 전 준희는 취직하면 한 톱 단단히 쏘겠다고 했다. 준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자신이 없었다. 문 대리는 손이 얼얼할 때까지 볼펜을
빠르게 돌렸다.

어느 순간, 문 대리는 손에서 볼펜을 내려놓았다. 볼펜 대신 마우스를 쥐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이제부터 진짜 문서를 작성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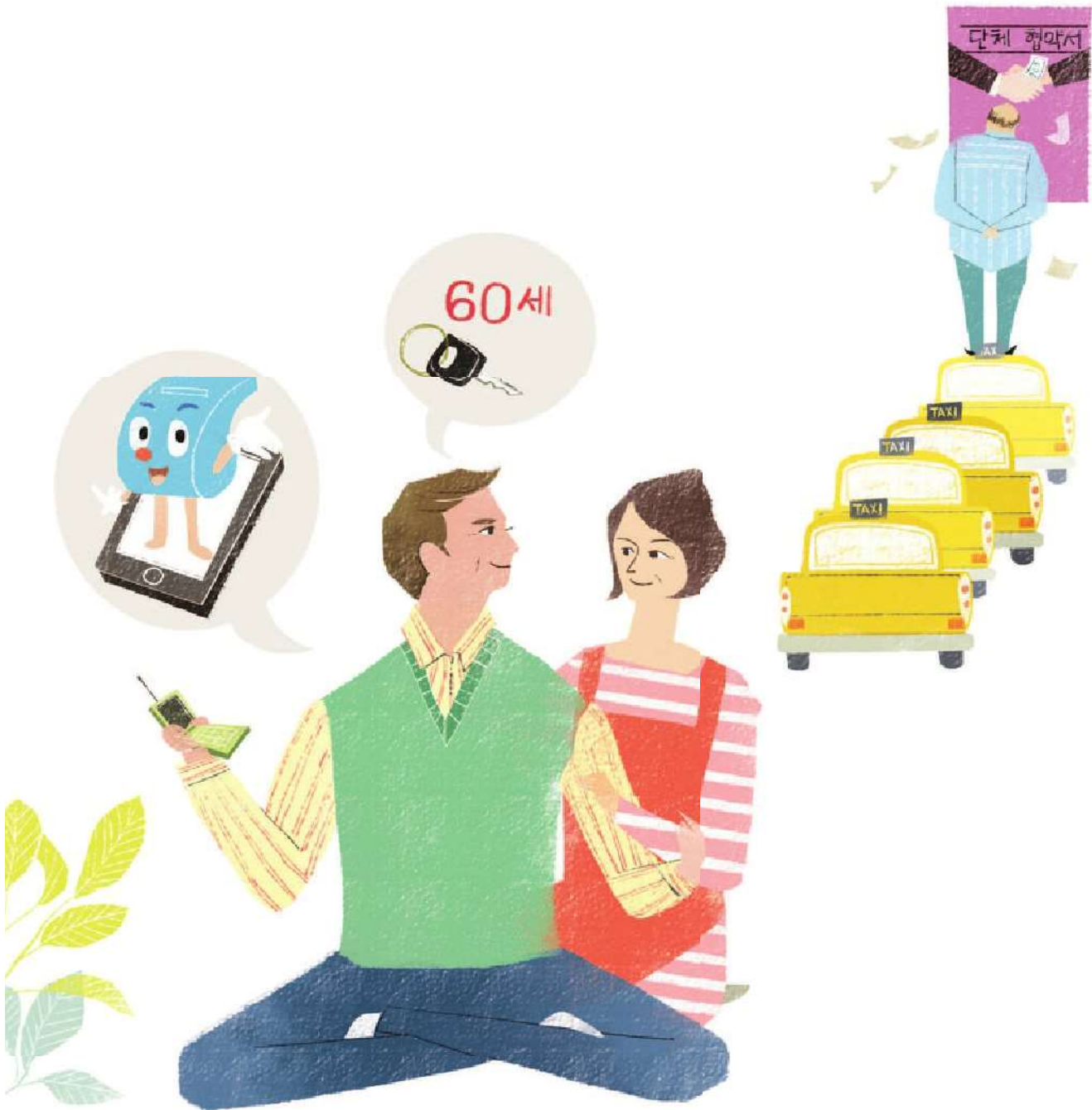
**알아
두세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이란 급여에 대한 부담이 큰 중소기업이 신규 직원을 인턴 형태로 채용한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1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약정서상에 정한 약정 임금의 50%를 인턴 기간(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인력 파견 업체와 제조업 두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K사장은 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청년 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했다.



정년의 도리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부정 수급



규식 씨는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을 홀랑 뒤집고 나오는 길이다. 그래도 도무지 분이 풀리지 않는다. 집에 가서 아내 얼굴을 어떻게 보나. 정년을 넘겨도 일할 수 있다고 큰소리 탕탕 친 게 후회됐다.

택시 운전을 하는 규식 씨는 이번 달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회사의 정년 나이 규정은 만 57세였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다. 체력도 젊은 사람 못지않은데 집에서 맥없이 늙어가기 싫었다. 규식 씨보다 아내의 걱정이 더 컸다. 바깥양반이 갑자기 집에만 있으면 잔소리가 는다니, 세끼 밥을 차려대자면 그러지 않아도 허리가 시원찮은데 어찌느냐는 등 한숨을 쉬었다.

택시에 탄 손님에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했더니, 요즘엔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 폐지하거나 정년 시점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연장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했다. 회사 측과 의논해보면 몇 년 더 일할 수 있을 거란 말에 규식 씨는 당장 차고지로 차를 돌려다.

사장은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대신, 사장실에서 규식 씨가 발견한 것은 단체 협약서였다. 눈에 띈 대목은 정년 규정이었다. 정년을 만 60세로 하되, 60세 이후의 근로는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한다고 돼 있었다. 정년 규정이 바뀐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니! 규식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마누라한테 보란 듯이 장담을 한 것이다. 규정도 바뀌었겠다, 사장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었다.

“우리 회사 정년이 60세라고 써 있네요.”

의기양양하게 단체 협약서를 들이미는 규식 씨에게 사장은 ‘그런 규정은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분한 마음에 규식 씨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갔다. 마침 조합장이 있었다. 단체 협약서에 정년 조항이 바뀌었는데 왜 사장이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며, 조합원에게 조항이 바뀐 사실을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조합장은 바빠서 그랬다며 발뺌했다. 그제야 규식 씨는 사내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란 확신이 들었다.

“사장에게 노동조합 인감을 아예 맡겼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제 보니 사실이구먼!”

잔뜩 흥분한 규식 씨가 조합장 목살을 잡고 흔들었지만 바뀌는 건 아무 것도 없었다. 규식 씨는 며칠 뒤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뒤로 조합원 자격도 상실하게 되어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분기는 어디 가고 갑작스럽게 우울해졌다. 사장과 조합장은 나 몰라라 하는 데다 조합원에 불과한 규식 씨에게 뽐족한 방법이 있을 리 없었다. ‘이대로 퇴직하는구나’ 싶어 가슴이 답답했다. 방으로 들어가 벌렁 누워버린 규식 씨에게 아내가 다가왔다. 아내는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말해보라며 설득했다. 규식 씨는 사측과 조합장이 짜고 고용연장 지원금을 빼돌리기 위해 말뿐인 정년 연장을 한 것 같다며 이번 달 정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그러자 아내가 뜻밖의 말을 했다.

“당신, 이제부터 할 일이 생겼네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센터에 전화해서 상담 받아봐요. 어찌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회사에서 고용연장 지원금을 빼돌린 게 확실하면 최대 20억 원이나 받을 수 있대요.”

규식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젊음이 못지않은 게 어디 체력뿐이라. 정의감도 그에 못지않다는 걸 보여주고 말리라. 온몸의 근육이 불끈 솟아올랐다.



**알아
두세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이란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으로 퇴직해야 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는 1인당 월 30만 원(최대 2년)을 지원해주는 정년연장 지원금과 1인당 월 30만 원(6개월~2년)을 지원해주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이 있다. A택시 대표 등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상 정년 규정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받았으며 부정 수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되었다.

추임새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금 부정 수급



조 여사가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저녁 공연을 앞두고 단가 한 소절을 막 끝냈을 때였다. 그녀는 아무리 바빠도 ‘목 푸는 소리’를 건너뛰는 법이 없다. 오늘 공연 레퍼토리는 ‘심청가’ 중 자진모리에서 계면조로 넘어가는 몇 대목이다. 자주 하는 공연이지만 조 여사는 소리 한 자락 허투루 하지 않는다. 곳곳이 뻗어나가는 소리 하나로 칠십 평생을 살았다.

“어머니, 제자 중에 활동 뜬하신 분들 있잖아요. 명단 좀 알려주실 수 있죠? 주소와 전화번호도요.”

아들 병수였다. 어려서부터 병수는 소리에 재능이 부족했고, 고수를 시킬 재목도 되지 못했다. 그래도 먼 길을 돌아와 뒤늦게 국악을 알리겠다고 애쓰는 걸 보면 대견했다. 요즘에는 무슨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국악 공연을 한다고 가끔 이것저것 물어왔다.

“무슨 일로 그래?”

“공연 지원금을 받아서 국악 공연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공연에 참여하실 분들이 필요해요.”

여러 유명한 선생님들도 계신데 왜 꼭 제자들이어야 하느냐는 조 여사의 말에 아들의 대답은 그게 ‘일자리 창출 사업’이어서 그렇다는 것이었다. 조 여사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더 캐묻는 것도 번잡스러워 “그러마” 하고 대답했다.

공연장에는 허 고수가 먼저 와 있었다. 흥을 돋우고 소리를 끌어내는 데 허 고수만 한 사람이 없다. 공연 시간까지 조금 여유가 있어 조 여사는 허 고수에게 소리꾼 몇 사람의 안부를 물었다. 허 고수가 복채를 내

려놓더니 진작부터 할 말이 있었다며 정색을 했다.

“아드님이 요즘 하는 일 때문에 그러시나 본디요, 그거 원망이 많습디다.”

‘원망이 많다니?’ 조 여사는 가슴이 철렁했다.

허 고수는 얼마 전에도 조 여사의 부탁으로 <우리 가락 한마당>이라는 소극장 공연에 소리꾼들을 소개시켜줬다가 아주 곤란했다고 했다. 병수가 곧 공연을 할 것처럼 주민등록번호와 인적 사항 같은 걸 조목조목 묻더니 이후에는 연락이 뚝 끊기더라는 것이다.

“소리꾼 이름을 가짜로 등록해서 지원금을 가로채는 것 같다고 합디다. 실제 공연은 하지도 않고요.”

허 고수의 말을 듣는 내내 조 여사는 심장이 떨려 웃고름을 꼭 쥐고 서 있었다.

조 여사는 공연 중에 목이 잠겨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허 고수가 그때마다 “얼쭈”, “으이구” 추임새를 열심히 넣어줘 위태롭게 고비를 넘겼다. 그러다 심 봉사가 관가에서 맹인 잔치 통보를 받고 나오는 길에 관직이 매매되는 걸 목격하는 대목에서 기어코 소리가 뚝 끊기고 말았다.

다음 날 조 여사는 제자들에게 연락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출근부양식에 사인만 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했다. 병수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조 여사가

직접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찾아갈 작정을 했다. 직접 조사관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내 자식의 잘못을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날이 밝으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했다. 조 여사의 귀에는 ‘소리’를 재촉하는 고수의 추임새가 찌렁찌렁 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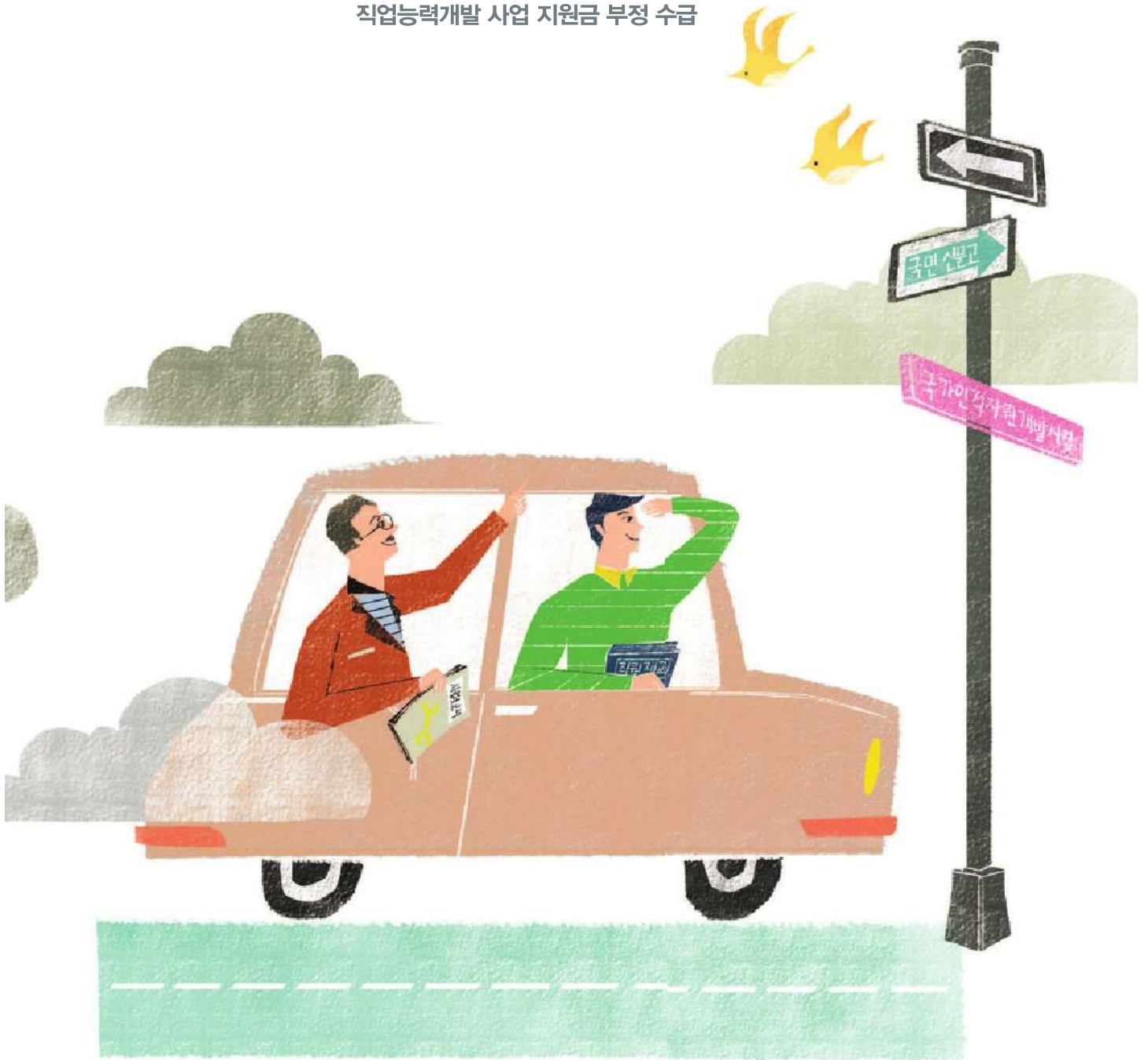


**알아
두세요!**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금이란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다. 이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중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취약 계층 고용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비 사회적기업 대표 A씨는 실제로 근로하지 않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부당하게 편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았고 부정 수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되었다.

액셀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 부정 수급



“김 사장, 직원들이 교육을 아주 성실히 이수했는데? 출석률이 100%더라고.”

회사 연구실로 찾아온 신 교수의 말에 김 사장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사장은 올해 초 신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에 산학협력가족회사로 등록했다. 신 교수의 도움이 컸다. 신 교수는 같은 대학 자동차 제작 동아리 선배였다. 지금은 서로 ‘교수’니, ‘사장’이니 부르지만 대학 시절엔 동아리 방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용접을 하고 미션을 분해했다. 들은 닦은 구석도 많았다. 문제가 생기면 돌아가는 법을 몰랐다. 자동차 업체에서 후원금을 받는 일도, 해외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는 일도 주위에서 모두 고개를 저었지만 두 사람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엑셀을 콧 밭으라고!” 그 시절 신 교수가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던 말이었다.

석 달 전 신 교수는 대학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홍보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신 교수는 김 사장에게도 좋은 기회일 듯싶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 사장에게 우수 인력 유치와 직원 재교육은 가장 큰 문제였다. 무료로 직원들에게 관련 기술을 교육시켜준다니, 기대가 생긴 김 사장은 당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선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연구팀 사원 세 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 공교롭게 업무가 폭주했다. 주선해준 신 교수에게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김 사장은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불참을 통보하고 양해를 구했다. 그런데 참석률이 100%라니.

“실은, 사정상 그 사업에 참여하질 못했습니다.”

김 사장의 말에 신 교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한데? 내가 사업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했거든. 모두 일곱 명 파견하지 않았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대학 시절 같으면 당장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칫 대학에 몸담고 있는 신 교수의 입장이 난처할 터였다. 난감해진 김 사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뭘 그렇게 눈치를 봐? 빨리 액셀을 콧 뺨으라고!” 동아리 방에서 수백 번도 더 들었던 말이었다. 신 교수의 말이 떨어지자 그제야 김 사장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신고부터 해야겠네요.”

인터넷에 부정 신고 내용을 올리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조사관과 상담한 후 김 사장이 진술서를 쓰고, 신 교수가 사업보고서를 확보해 조사관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이 모든 게 잠깐 사이에 결정됐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있는 정부 과천 청사로 지금 당장 출

발하자는 신 교수에게 김 사장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형, 좀 쉬었다가 가요. 세월을 거슬러 후진하려니까 이제는 힘들어요.”

“이 사람이 엔진을 좀 손봐야 하나? 아직 쉴 때가 아냐.”

신 교수의 말에 두 사람은 너털웃음을 지었다.



**알아
두세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기업, 사업주 단체, 공공 훈련 기관 및 대학 등의 운영 기관을 통해 무료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비용 부담 없이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악용한 L대학 산학협력단은 직업 훈련 참가자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기재해 직업 훈련비 등을 편취했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 따른 부패 행위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마늘 매운맛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소미야, 오늘 새로 오신 미술 선생님이 재밌는 거 만들어주셨어?”

이 여사는 초롱반 소미의 손을 잡고 물었다. 소미는 이 여사네 앞집에 사는 다섯 살배기다. 눈만 마주쳐도 까르르 웃는 게 너무 예뻐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다.

“오늘 미술 선생님 안 오셨어요. 초롱반 선생님이 색종이 접기 해줬어요.”

소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갸우뚱한 건 이 여사도 마찬가지였다. 오늘은 어린이집에 외부 강사가 와서 미술 특별 수업을 하는 날이다. 만드는 걸 좋아하는 소미가 손꼽아 기다린 날이기도 했다.

“그래? 우리 소미가 재밌었으면 됐지. 어서 가자. 엄마 기다리시겠다.”

이 여사는 더는 묻지 않고 소미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린이집 주방에서 일하는 이 여사는 바쁜 소미 엄마를 대신해 매일 소미를 집에 데려다준다. 같이 살던 아들 내외가 손녀를 데리고 분가한 후로 한동안 적적했는데 꼬맹이들 곁에서 일하니 한결 활기가 돌았다.

“우리 소미 잘 놀다 왔어?”

소미 엄마는 소미를 안아 올리며 이 여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순간 소미 엄마에게서 마늘 냄새가 확 풍겼다. 소미 엄마는 온종일 마늘 까는 부업을 하고 있었다.

“오늘 미술 시간에 초롱반 선생님이 왕관 만들어줬어.”

“그래? 소미가 미술 선생님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늘도 특별 수업을 안 한 모양이네.”

소미 엄마의 말에 이 여사는 무슨 말인지 되물었다. 좀 전엔 어린 소미가 뭔가 착각했거나 여겼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가끔 이러네요. 특별 수업을 한다고 해서 특별활동비도 추가해서 내는데, 아이 말을 들어보면 안 할 때도 많은 것 같고… 한번 제대로 따지겠다고 버르는 엄마도 있어요.”

소미 엄마도 뭔가 미심쩍은 얼굴이다.

“실은 나도 좀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었어. 우연히 주 원장 책상 위에 장부가 펼쳐져 있는 걸 봤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나도 보육교사로 등록돼 있더라고. 그것도 시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더 받으려고 속인 게 아닌가 싶어.”

이 여사는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던 말을 꺼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원장이 보조금을 더 받으려 꼼수를 쓴다느니, 특별활동비를 비싸게 받는다는느니 하는 소문은 이미 단골 수닷거리였다.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보니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소미 엄마는 마늘 독이 올라 텅텅 붉은 손으로 연신 소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엄마, 매워, 매워.”

소미는 마늘 내가 매운지 저만치 달아났다. 달아나면서도 이 여사와 눈이 마주치자 또 까르르 웃는다.

“소미 엄마, 이런 건 어디다 신고해야 해?”

이 여사는 어른뿐 아니라 애들까지 속이는 주 원장이 아주 괘씸했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만두세요. 그러다가 일자리 잃으면 어찌시려고요? 엄마들이 알아서 잘할 거예요.”

소미 엄마가 말했다.

“어서 전화번호나 말해줘. 우리 소미 대신 주 원장에게 마늘 매운맛 좀 확실히 보여줘야겠어.”

열심히 사는 소미 엄마와 귀여운 소미를 위해, 이 여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전화번호를 힘주어 꼭꼭 눌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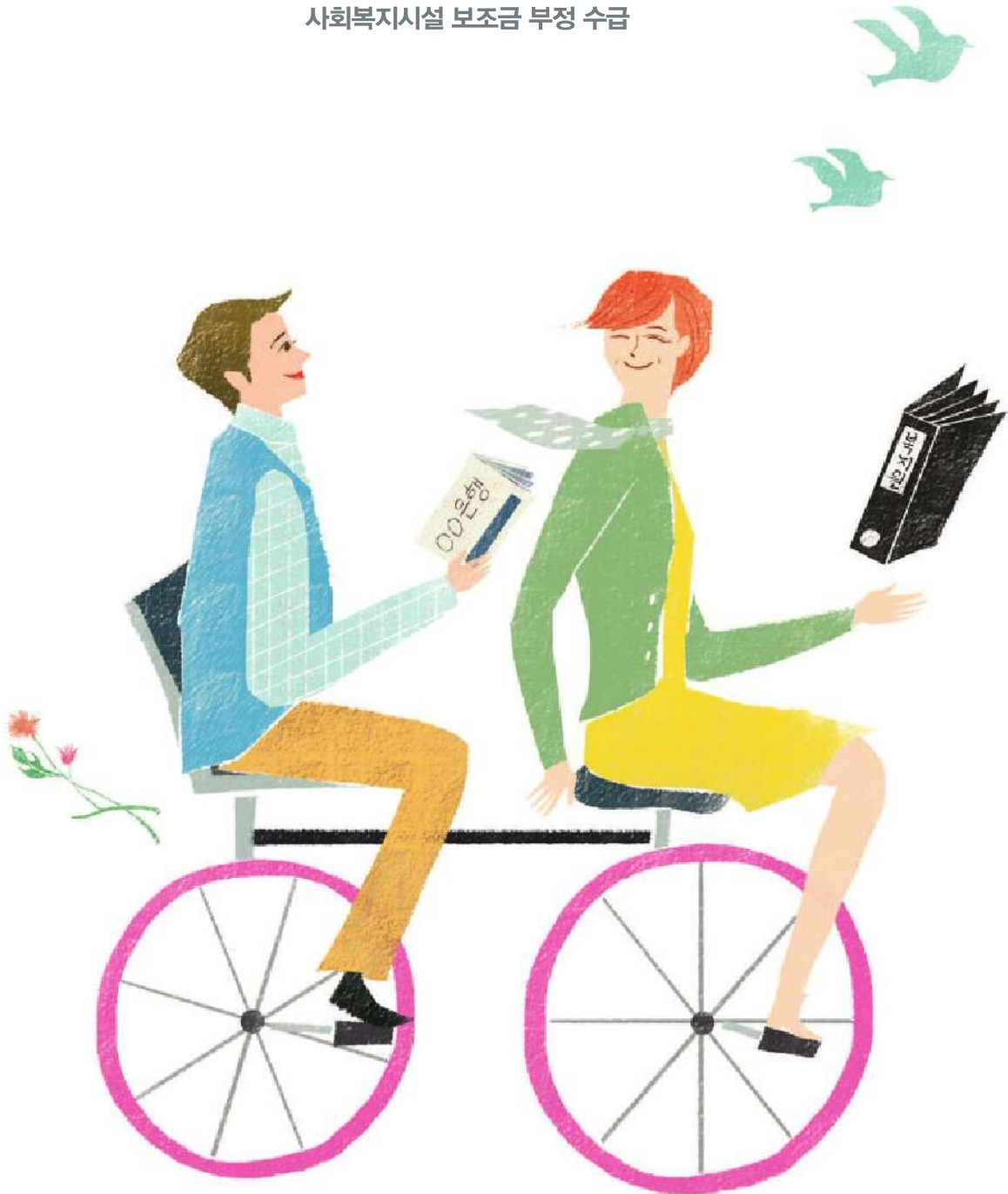


**알아
두세요!**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 시간제 보조교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편취했다. 또한 아동의 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납했으나 특별활동 일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속여 차액을 편취했다.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 행위에 해당되며 「영유아보호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몸이 하는 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 수급



한 주임은 작업대를 돌며 다 접은 편지지를 모아 상자에 차곡차곡 넣었다. 그녀는 복지원 작업장에서 일한다. 장애우들에게 편지지 접기나 바느질 등 단순 작업이 필요한 일감을 주고 관리한다. 적은 금액이라도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 꼬박꼬박 급여가 쌓이면 장애우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된다.

“벌써 다 접었네. 성렬 씨는 집중력이 좋은가 봐요.”

한 주임의 말에 성렬 씨는 힘겹게 목을 가늠 겨우 눈을 맞췄다. 성렬 씨는 뇌성마비 장애우다. 중추신경 계통 중 운동 영역에만 장애가 있을 뿐, 지능은 보통 사람과 같다. 평소 유독 말이 없고 침울한 편이라서 한 주임은 특별히 신경을 썼다.

“성렬 씨, 그동안 받은 월급으로 뭘 했어요? 모두 부모님 드렸어요?”

한 주임은 성렬 씨의 기분을 풀어줄 요량으로 말을 건넸다.

“통...통장이 없...어...”

이게 무슨 소린가? 급여 통장으로 꼬박꼬박 월급을 넣어주고 있는데.

“급여 통장을 안 가지고 있던 말이에요?”

성렬 씨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한 주임은 성렬 씨를 회의실로 데리고 갔다.

“성렬 씨, 혹시 급여 통장을 부모님이 보관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성렬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육체 안에 갇힌 영혼이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한 주임은 성렬 씨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부모님은 어린 시절 성렬 씨를 복지원에 맡긴 뒤로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듯했다. 성렬 씨는 몸과 마음 모두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란 생각에 한 주임은 다른 장애우들에게도 급여에 관해 물었다. 모두 급여 통장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가끔 원장이 ‘지출 요구서’라고 적힌 문서를 가져와 사인하라고 했고, 사인을 거부하면 폭행이 뒤따랐단다. 급여 통장뿐 아니라 장애 수당이 들어오는 통장도 원장이 일괄 관리한다고 했다.

한 주임은 팔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다. 이런 줄도 모르고 일감을 구해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업을 독려했단 말인가. 힘들게 일한 대가가 모두 원장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한 주임은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털어내기 위해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110번을 눌렀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였다.

“혐의를 의심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증거물은 가지고 계십니까?”

조사관의 말에 한 주임은 서랍 속 USB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최근 3년간 급여 지급 내역서를 USB에 담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한 통장 계좌도 있고요.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해보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사관과 통화하는 내내 성렬 씨가 한 주임 곁을 지켰다. 여전히 그의 몸속엔 무엇인가 꿈틀대고 있었다. 한 주임의 눈엔 강렬한 희망의 몸짓으로 보였다.



**알아
두세요!**

사회복지법인재단의 이사장 A씨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자신이 소유한 사업체인 노인요양원, 카페의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유용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장애인 작업 시설의 수익금을 입소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법인 운영비 등으로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이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이들에게서 지출 요구서에 서명하게 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사회복지시설의 부정 수급 사례는 비상근·임시직을 상근직으로 꾸미거나 허위 출근부를 등록해 시간 외 수당을 챙기는 인건비 횡령이 가장 많다. 또한 원장이 사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업체와 결탁해 사회복지카드를 사용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 수급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마지막 파트너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비용 부정 수급



“김 소장님! 정 간호사예요. 알아보시겠어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의사 곁에서 정 간호사는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소장님,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정 간호사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김 소장이 입술을 미세하게 움직였다.

김 소장은 정 간호사가 일하는 요양병원의 장기 입원 환자다. 파출소장으로 퇴임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해 85세가 된 지금도 꼬박꼬박 소장님이라고 부르게 했다. 그것도 모자라 가끔 정 간호사를 불심검문해서 곤란하게 만들었다. 김 소장은 자신의 옆자리가 매일 비어 있는 것이 이상해 간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옆자리 환자가 누군지 물어보곤 했다.

“정 간호사, 옆자리에 입원한 환자 이름이 뭐라고?”

며칠 전만 해도 김 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정 간호사는 김 소장의 수액 링거 줄을 확인하고 있었다.

“천…재…명 환자분…?”

정 간호사가 미처 말을 끝맺기도 전에 김 소장이 호통을 쳤다.

“뻑! 또 틀렸네. 어제는 김재문, 그제는 서오순, 또 그 그제는 노수명. 대체 같은 자리 환자 이름이 매일 바뀌는 이유가 뭐야? 정작 사람은 없으면서!”

“그, 그야…”

‘그야 모두 유명 환자니까 이름이 헛갈려서 그렇지요….’

정 간호사는 속으로 우물거렸다. 이 요양병원에는 입원 서류만 있고 열

굴은 본 적도 없는 가짜 환자가 부지기수다. 입원 환자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는 것이다. 심지어 원무과 직원들은 유령 환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더 받는다며 가짜 환자를 데려오는 상황이었다. 의료진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입 밖에 내는 사람도 없었다. 정 간호사도 처음엔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시간이 지나는 동안 무뎠고 말았다.

“땡! 젊은 사람이 정의감이 이렇게 없어서야, 쫓쫓... 정 간호사, 지금이라도 내 수사에 협조해. 자네는 증거 서류를 갖고 있을 거 아냐.”

“예, 예, 알았어요.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소장님. 심장도 안 좋으신데 화내시면 건강에 해로워요.”

정 간호사는 적당히 김 소장의 말에 맞장구를 쳐줬다.

“요샌 내부 신고자 보호도 잘돼 있으니 안심하라고.”

김 소장이 귓속말로 속삭인 게 바로 어제였다. 그런데 갑자기 응급 상황이 닥친 것이다. 김 소장의 맥박과 호흡이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았을 때 정 간호사는 김 소장 곁을 지키고 있었다.

“소장님, 정신이 드세요?”

“정 간호사구먼... 이제라도 내 수사에 협조하...”

늘 하던 소리였다. 그 몇 마디를 채 마치기 전에 김 소장의 호흡이 불안정해졌다. 정 간호사의 이마엔 땀이 흥건했다. 결국 얼마 안 가 김 소장의 호흡이 멈추고 말았다. 정 간호사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김 소장님, 늦어서 죄송해요.’

병실을 나오자마자 정 간호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휴대전화를 들었다. 110번,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였다. 증거 서류는 꽤 오래전부터 정 간호사의 사물함에 있었다. 정 간호사는 김 소장의 마지막 수사 파트너였다.



**알아
두세요!**

M의원원의 경영자 D씨는 의료법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시설을 개설하고 소득을 나누거나 의사에게 월급을 주는 형태인데 영리를 위해 불법 및 과잉 의료 행위, 진료비 허위 및 부당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누수를 유발할 뿐 아니라 부실 진료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 수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